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Tech (OVERWEIGHT)

아이폰 듀오: 2,000달러 스마트폰 시대를 열다

- 가격 인상에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 필요. 내외부 디스플레이의 동일 비율과 컴퓨트 성능 강화가 애플의 대답
- 약 400달러의 추가 재료비 여력.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주에 주목

WHAT'S THE STORY?

아이폰 듀오 - 애플 폴더블 시대 시작

애플이 첫 폴더블기기인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다. 2019년 삼성전자가 첫 갤럭시폴드를 출시한 이후 7년만의 시장 진입이다. 신제품은 접었을 때는 여권과 유사한 비율의 컴팩트한 스마트폰, 펼쳤을 때는 소형 태블릿에 가까운 와이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삼성전자와 샤오미도 26년 비슷한 비율의 폼팩터를 출시하며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이폰 듀오는 5.4인치 외부 디스플레이와 7.6인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특히 두 디스플레이에 동일한 화면 비율을 적용해 접고 펼치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애플은 외부 화면을 한 손으로 사용하기 편하고 주머니에 쉽게 들어가는 크기로, 내부 화면은 콘텐츠 소비와 게임, 멀티태스킹을 위한 넓은 작업 공간으로 설명했다. 가격은 256GB \$1,999부터 시작된다. 애플 역사상 가장 비싼 스마트폰 가격대를 새롭게 열었다. 우리는 와이드 폴더블에 낙관적이며 애플 폴더블 출하량을 26년 600만대, 27년 1,500만대로 전망한다.

한편 iPhone 18Pro와 ProMax도 공개했다.A20Pro를 탑재하고 카메라, 배터리, 지속 성능과 AI 기능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 가격은 100달러 인상하여 각각 1,199달러, 1,299달러부터 시작된다. 일반형 아이폰의 신제품 출시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더 많은 아이폰을 판매하기보다 더 비싼 아이폰을 판매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애플은 왜 이제야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했을까

왜 애플은 지금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제서야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했을까. 애플의 late comer 전략은 익숙하다. 애플은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하기보다 기술의 완성도와 사용자 경험의 개선을 확인한 뒤 시장에 진입해왔다.

초기 폴더블 스마트폰은 기술 과시의 성격이 강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제품의 핵심 가치였다. 그러나 화면 주름, 낮은 내구성, 두께와 무게, 카메라와 배터리 성능의 희생 등 소비자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단점이 많았다. 실제로 폴더블 스마트폰은 지난 7년 동안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2%를 크게 넘지 못했다.

우리는 갤럭시 Z Flip의 등장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본다. 디스플레이가 접힌다는 기술적 특징보다, 접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이 찾은 답은 클램셸이 아니라 와이드 폴더블이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디자인을 만드는 것을 넘어 폴더블의 사용자 경험 자체를 다시 정의하려는 선택으로 본다. 기존 북타입 갤럭시폴드가 접었을 때에도 일반 스마트폰과 유사한 사용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면, 와이드 폴더블은 펼쳤을 때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가깝다.

결국 iPhone Duo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하나다. 소비자가 폴더블을 펼쳐야 할 새로운 이유를 찾았는가. 아이패드와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아이폰보다 화면이 컸기 때문이 아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웹브라우징과 콘텐츠 소비 방식을 바꾸었다. 아이폰 듀오는 외부와 내부 화면의 비율을 동일하게 만들어 접고 펼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내부 화면에서는 두 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하는 Split View를 처음으로 아이폰에 구현했다. 같은 비율에서 큰 화면으로 전환하는 경험이 기존 스마트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용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반도체 인플레이션 시대, 애플의 대답

애플이 2,000달러(300만원대)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 물론 이전에도 2,000달러 이상의 스마트폰은 존재했다. 그러나 1,000만 대 이상의 대량 판매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플래그십 제품이 2,000 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우리는 2027년 새롭게 형성되는 \$2,000+ 스마트폰 세그먼트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메모리, AP,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의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의 재료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아이폰의 재료비가 700달러를 넘어간 상황에서 애플이 기존 GPM을 유지하려면 판가 역시 구조적으로 올라가야 한다. 재료비의 약 2.5배 수준을 적용하면 필요한 판가는 \$1,800 이상이다. 문제는 기존 바타입 아이폰 형태로 1,500달러 이상의 가격을 대중적으로 정당화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프로세서가 20% 빨라지고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기존보다 500-1,000달러를 더 지불하기는 어렵다. 2,000달러는 가능하지만 1,000달러는 불가능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 필요하다. 폴더블이 애플의 대답이다.

세트보다는 부품

폴더블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폴더블 스마트폰이 확보한 높은 ASP는 세트업체에게 더 높은 재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우리는 애플이 기존 플래그십 대비 폴더블 스마트폰의 상승분 약 900달러를 바탕으로 대당 약 400달러 수준의 추가 재료비를 사용할 여력이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

상승분은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과 폼팩터 변화에 따른 기구물 부품에 집중될 것이다. 독점적 생산을 하게 될 삼성디스플레이의 판가 상승 속에 디스플레이 지지용 메탈플레이트를 생산하는 파인애플, 디스플레이용 FPCB 공급 업체 비에이치의 수혜가 가능하다. 현재 스마트폰 부품주의 Top-down 모멘텀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밸류에이션이 낮고 EPS의 상승이 명확하여 알파를 내기엔 적당하다고 본다.

- **비에이치(090460):** 주요 스마트폰 고객사향 FPCB를 공급하고 있다. 폴더블 아이폰은 디스플레이 면적이 일반 아이폰 대비 약 2.8배 확대되며, 이에 따라 FPCB 탑재 면적이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FPCB 면적 확대 및 사양 고도화에 따라 폴더블 모델의 대당 FPCB 판가는 기존 아이폰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2026년 애플 폴더블향 FPCB에서 약 1,400억원의 신규 매출(2025년 연간 매출의 7.8% 수준)을 예상한다.
- **파인애플(441270):** 주요 스마트폰 고객사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백플레이트를 납품하고 있다. 백플레이트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접히는 위치를 잡고 주름을 억제하는 강성 구조재이다. 동사는 26년부터 기존 화학 에칭 공법에서 레이저 드릴링 공법으로 전환하며 접힘부의 미세가공 기술을 강화하였다. 경쟁사 대비 품질이 우수하여 고객사별 80-90%의 점유율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고객사향 약 1,8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

iPhone 폴더블: 디스플레이 모듈 BOM cost

Items	Suppliers	Price
OLED panel	SDC	\$150
Inner thinglass	Lens (100%)	\$12
Cover glass using UTG	UTI (50%), Lens (50%)	\$25
UTG (Gorilla glass)	Corning (100%)	\$6
Metal backplate	Fine Mtech (72%), Lingyi (28%)	\$25
FPCB	BH Flex (90%), SI Flex (10%)	\$17
Total Module Price		\$229

자료: 삼성증권 추정

AI: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능성과 한계

폴더블 스마트폰이 돈이 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것이 스마트폰 산업 전체의 성장 정체를 해결하는 대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높은 가격, 무게와 두께, 기능의 범용성 (모든 사용자가 두개의 디스플레이를 항상 들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문제는 제품 확산에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 가격대 상위 5% 이내의 틈새 카테고리 오랫동안 살아남을 품팩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의 미래는 AI를 가장 잘 구현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도체만의 변화로는 부족하며 품팩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camera의 위치와 기능일 가능성이 높다. AI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최적의 답을 제공하는 모델에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응하고,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Agent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센서가 카메라이다. 카메라의 역할이 확장 되는 순간 품팩터도 바뀌어야 한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이것이 결국 한 번은 발생할 디바이스의 티핑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아이폰 듀오에서 애플이 표현한 'lets Siri see what the user sees' 즉 우리가 보는 것을 시리가 보는 디바이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AI디바이스의 방향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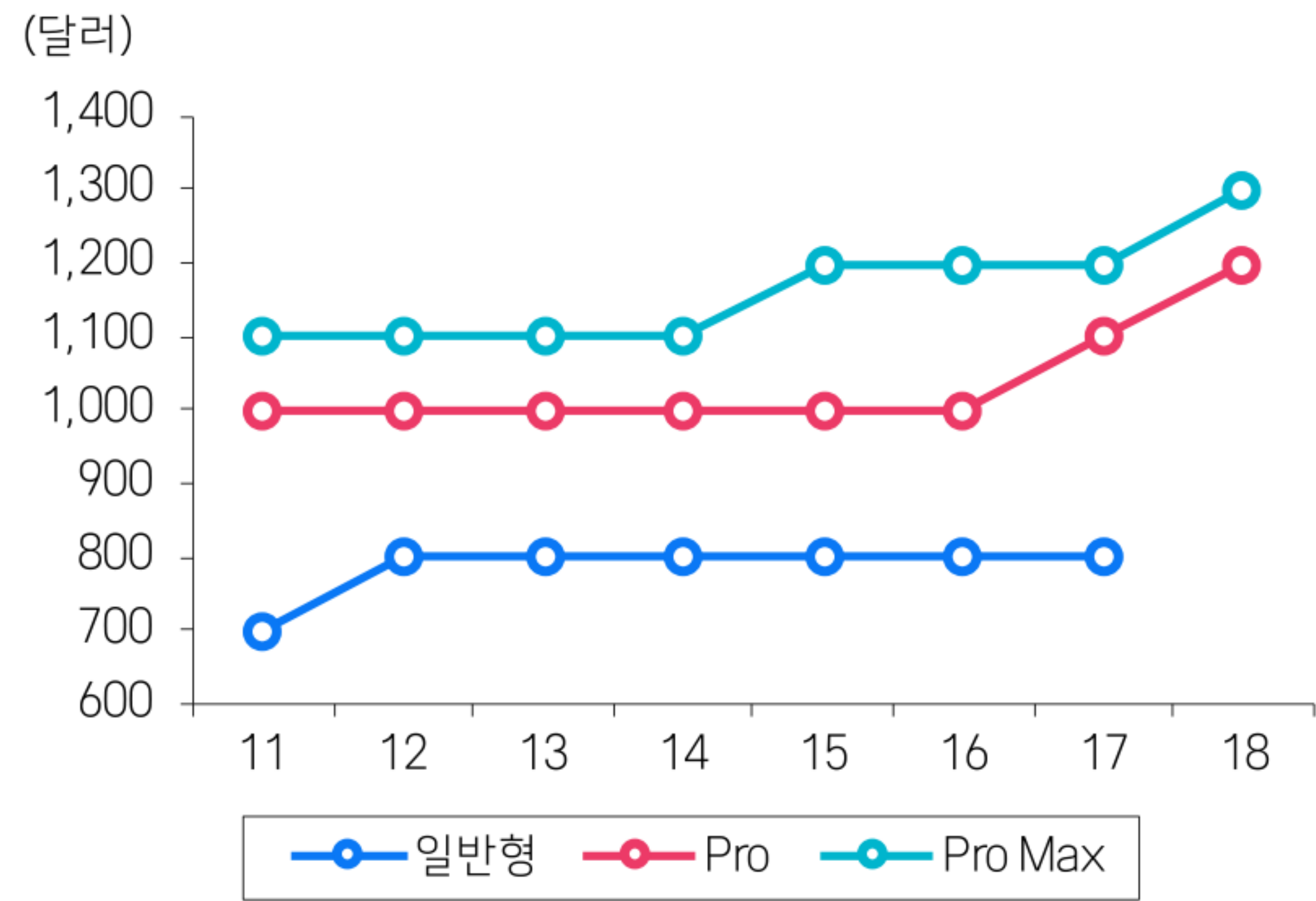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 변화로 가는 과도기적 device가 될 수도 있다. 고성능 AI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 소모와 발열이다. 넓은 면적을 가진 폴더블 디바이스는 구조적으로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하고 방열 면적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실제로 아이폰 듀오 역시 A20 Pro와 함께 custom vapor chamber를 탑재해 지속 성능을 높였고, 양쪽 샤페에 배터리를 배치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동시에 펼쳐진 대화면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따라서 폴더블 스마트폰은 단순히 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높은 컴퓨트 성능을 제공하는 모바일기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애플 iPhone Duo



자료: Apple

애플: iPhone 시리즈별 출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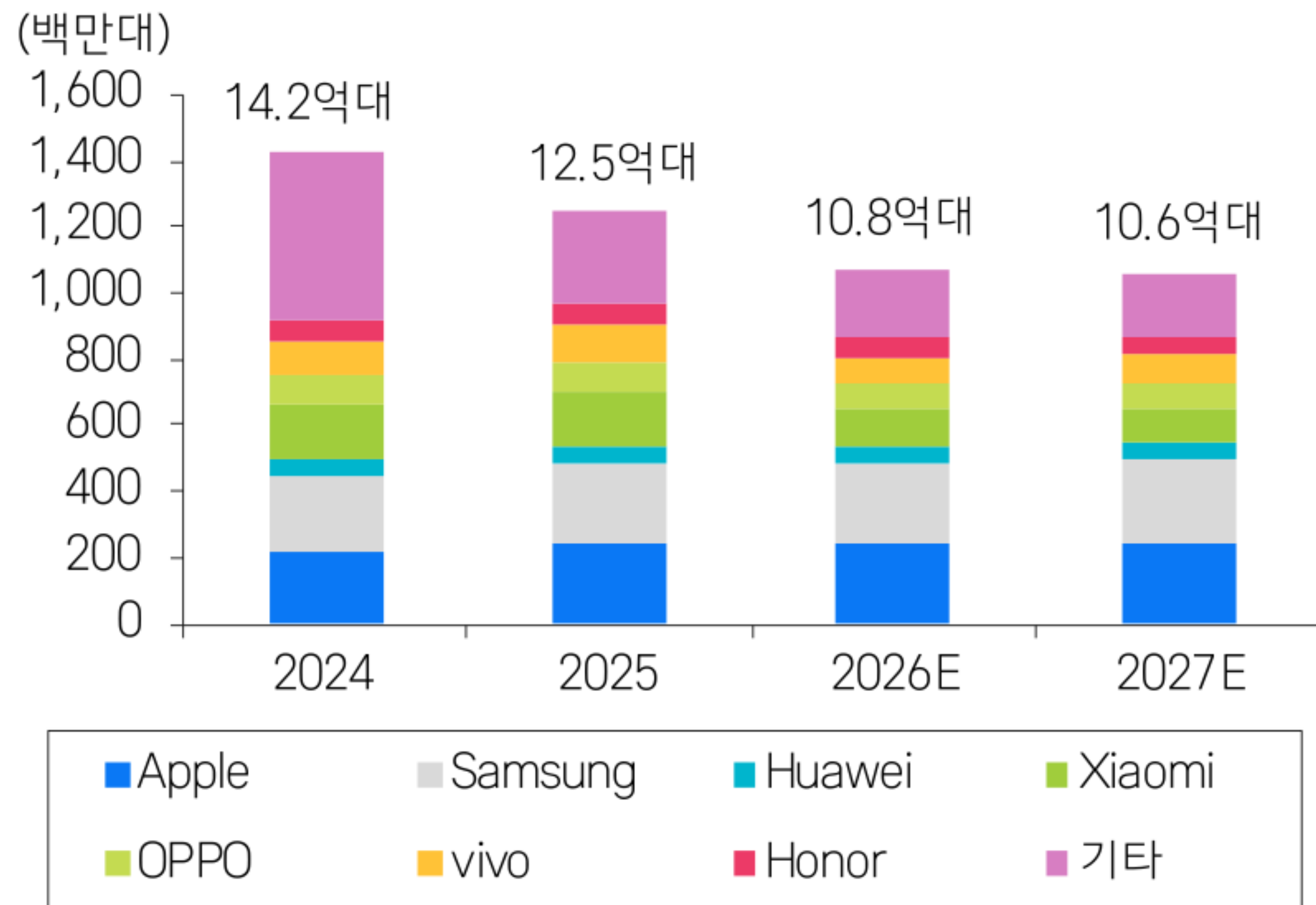
자료: Apple, 삼성증권

애플 폴더블 iPhone vs 타사 폴더블 스마트폰 스펙 비교

	iPhone Duo	Galaxy Z Fold 8	Xiaomi 18 Fold	Huawei Mate XT2
출시일	2026년 9월	2026년 7월	2026년 9월	2026년 9월
반도체				
프로세서	A20 Pro (TSMC 2nm)	Snapdragon 8 Elite Gen5 for Galaxy Mobile Platform (TSMC N3P)	XRING O3 (TSMC 3nm)	Kirin 9050 Pro
코어/클럭속도	6-core	Octa-core	10-core	9-core
GPU	7-core GPU with Neural Accelerators	Adreno 840	G2-Ultra NX	Maleoon GPU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메인)	Super Retina XDR OLED	Dynamic AMOLED 2X	OLED	OLED
디스플레이 (커버)	Super Retina XDR	Dynamic AMOLED 2X	OLED	OLED
화면크기 (in) (메인)	7.6	7.6	7.58	10.2
화면크기 (in) (커버)	5.4	5.5	5.38	
해상도 (픽셀)	2670x 1878	2448x 1848	2364x 1672	2232x 3184
PPI	430	404	382	382
카메라				
후면카메라 (MP)	48 / 48 (Dual)	50 / 50 (Dual)	200 / 50 / 50	50 / 50 / 40 (Triple)
전면카메라 (MP)	12	10	16	8
메모리				
메모리 (GB)	12	12 / 16	12 / 16	16
저장공간 (GB)	256 / 512 / 1 / 2(TB)	256 / 512 / 1(TB)	256 / 512 / 1 (TB)	256 / 512 / 1 (TB)
기타				
배터리 (mAh)	미공개	4800	6000	5600
두께 (mm) (접었을 때)	11.3	9.7	10.7	12.3
두께 (mm)	5.2	4.5	5.0	3.5
무게 (g)	254	201	219	299
크기 (mm)	164.6x 117.8x 5.2	161.4x 123.9x 4.5	163.8x 117.8x 5.02	219.2x 157.2x 3.5
크기 (mm) (접었을 때)	84.1x 117.8x 11.3	81.9x 123.9x 9.7	83.6x 117.8x 10.68	77x 157.2x 12.3
출고가 (달러)	1,999	1,899	1,640	2,979
주요 특징	애플 첫 폴더블 애플펜슬 지원	디스플레이 비율 변경(4:3)	16GB RAM은 CXMT LPDDR6 최초 탑재	트라이폴드형 듀얼 인폴딩 방식의 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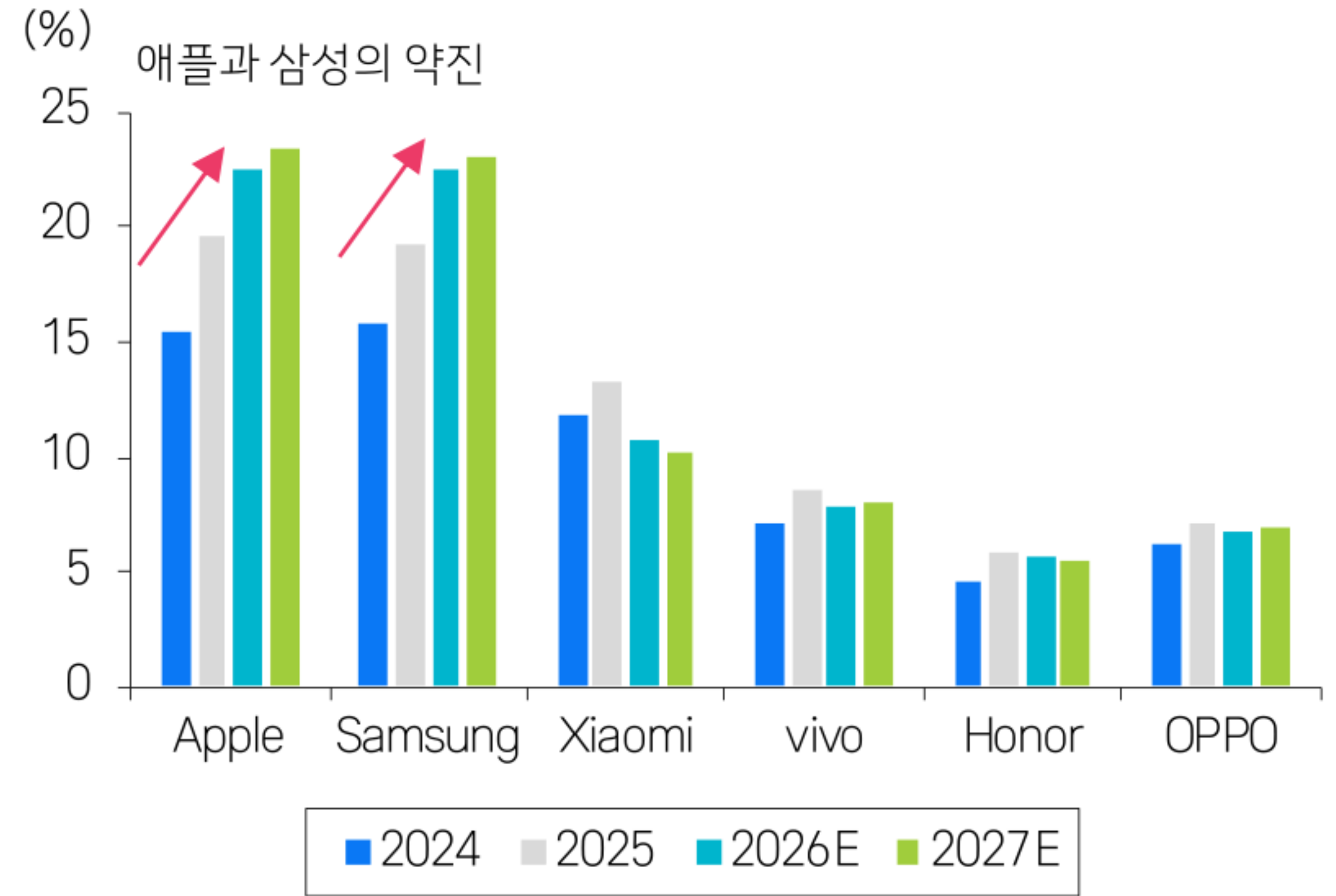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정리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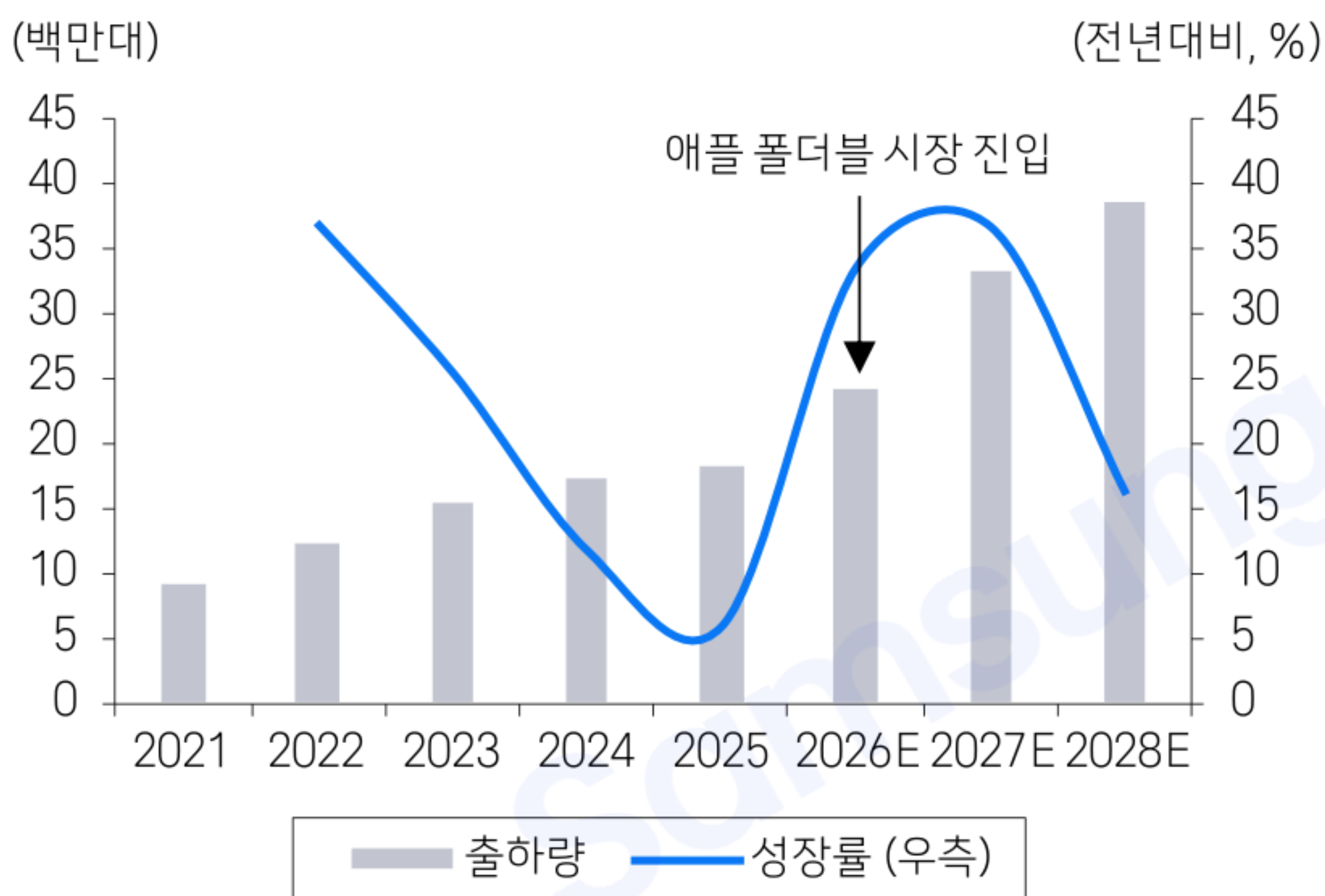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삼성증권 추정

연간 스마트폰 점유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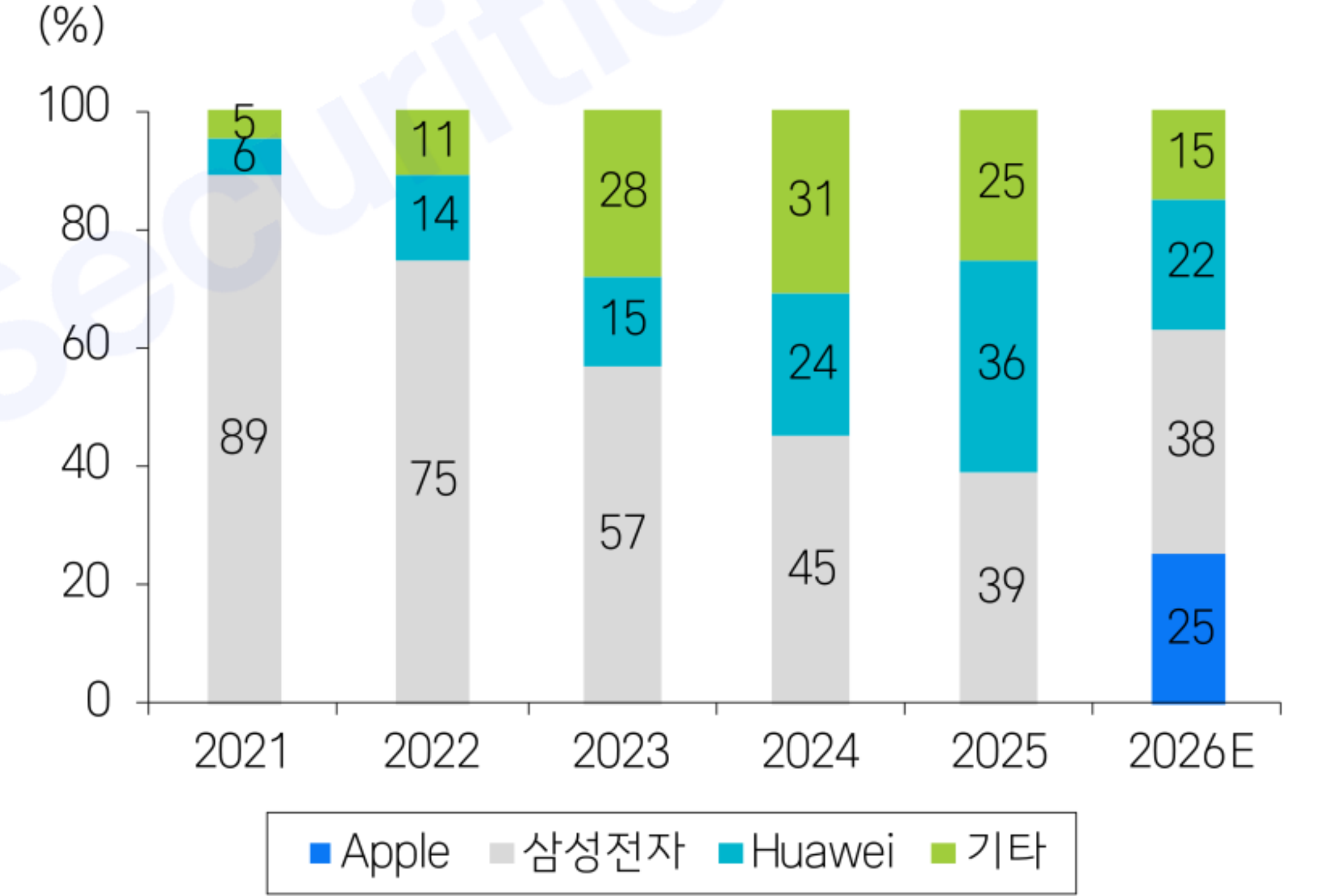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삼성증권 추정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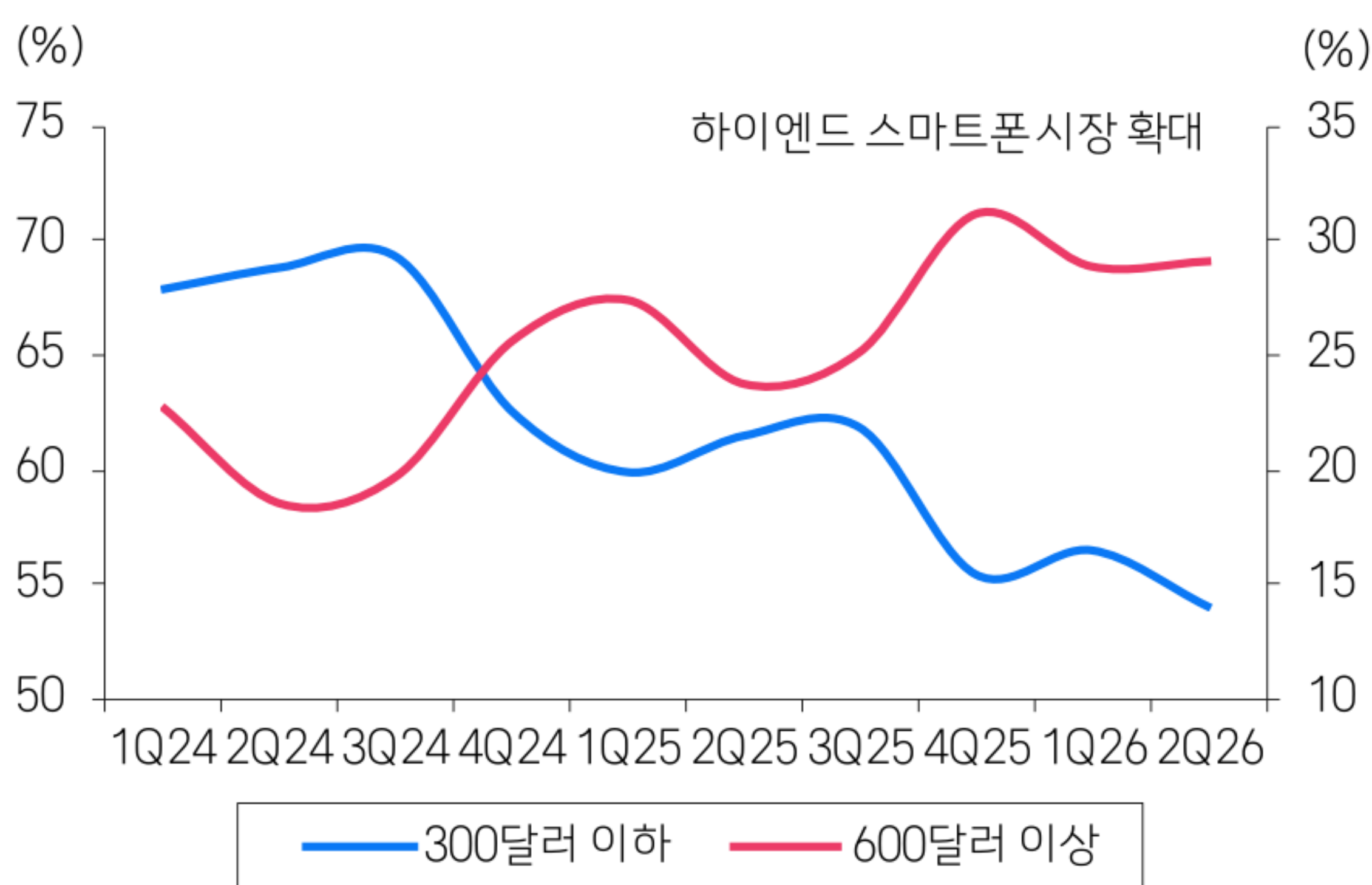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삼성증권 추정

폴더블 스마트폰 점유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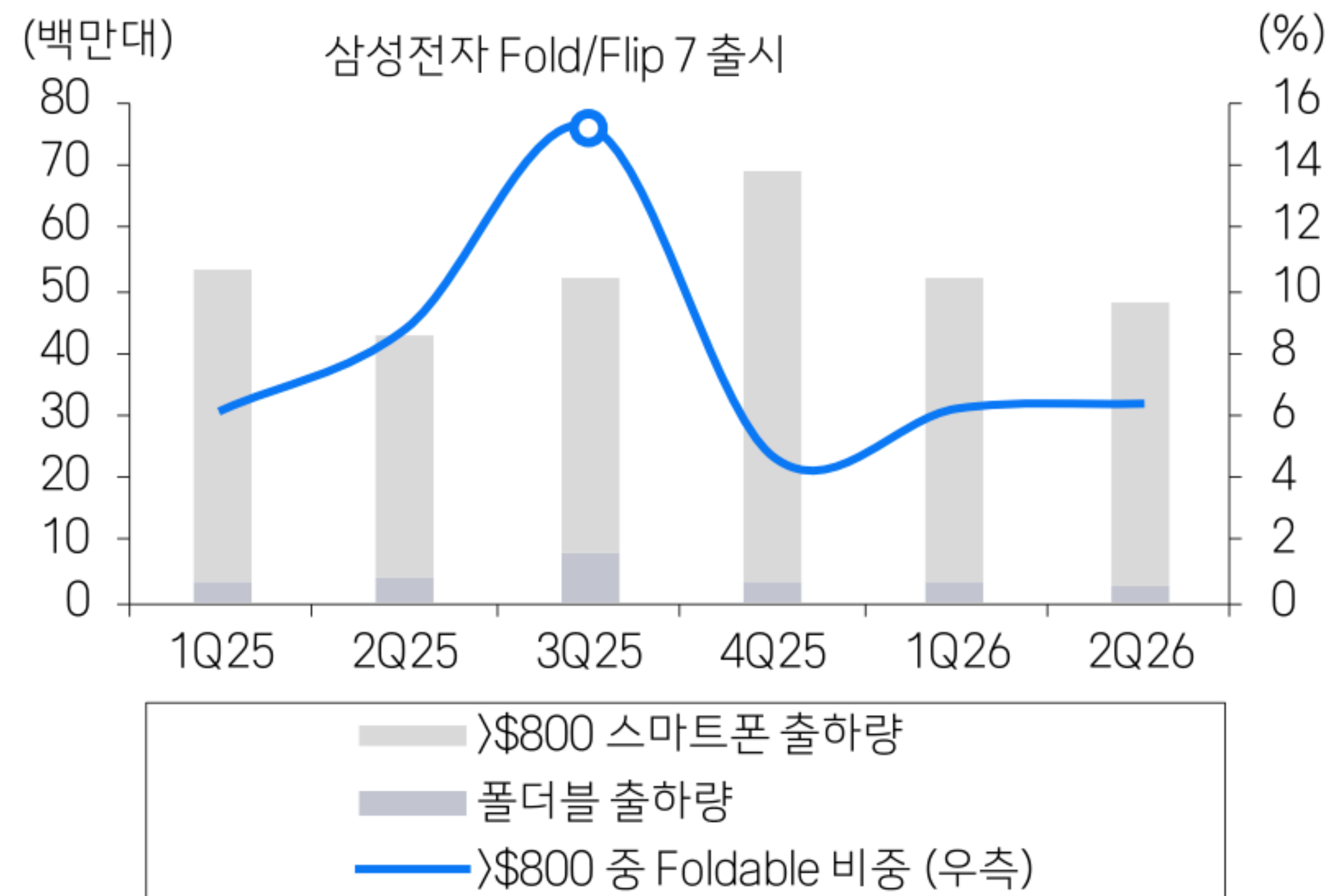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Omdia, 삼성증권 추정

ASP별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 추이



자료: Counterpoint, 삼성증권 추정

800달러 이상 하이엔드 스마트폰 내 폴더블 비중



자료: Counterpoint, 삼성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9월 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비에이치	
일 자	2026/9/10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과리율 (평균)	
과리율 (최대or최소)	
파인애플	
일 자	2026/9/10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과리율 (평균)	
과리율 (최대or최소)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NEUTRAL(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85.5%)·중립(14.5%)·매도(0%)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